

66 | 가족가공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양안안구건조증

성별	남	나이	38세	직종	가족가공업	업무관련성	낮음
----	---	----	-----	----	-------	-------	----

1 | 개 요

근로자 강○○은 2005년 3월부터 2006년 8월까지 가족염색공정 중 적재 업무를 수행했다. 2006년 3월경부터 양눈이 따가운 증상 등이 시작되었고 이런 증상은 작업 중 세척물이 눈에 튀어 발생하여 이후 안구건조 증세까지 온 것 같다 생각되어 요양신청을 하였다.

2 | 작업내용 및 환경

근로자 강○○은 원피가공 및 가족제조업체인 (주)○○에서 2005년 3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염색과 세척 과정이 끝나 물과 함께 대형 드럼통에 담겨있던 가족을 드럼통의 배수구를 열어 물을 버린 후 한 장씩 꺼내 펴서 목재 파렛트에 쌓는 적재 업무를 수행했다.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았으나 대체로 여름철에는 새벽 4시30분 - 12시, 겨울철에는 새벽 6시 - 오후 2~3시까지 주 6일 작업을 했고 작업 중 고무장갑과 앞치마만을 착용했다. 사업장 방문 시 적재 작업 중인 드럼통에서 채취한 벌크시료는 분석은 불가했으나 PH는 평균 3.73으로 산성을 나타냈다(수돗물은 7.13). 과거 작업환경측정결과를 확인해 본 결과, 2007년과 2008년 적재 공정에서는 소음에 대해 평가했으나 모두 노출기준 미만이었고 적재 전 단계로, 여러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염색태고 공정에서는 크롬(3가)화합물과 암모니아에 대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했으며 그 평가 결과는 모두 노출기준 미만이였다.

3 의학적 소견

근로자 강○○은 술은 마시지 않고 담배는 가끔씩 피운다고 했다. 알레르기 등 특이 증상은 없고 가족 중에 특별한 질환을 가진 사람이 없으며 (주)○○에서 일하기 전까지 큰 건강 문제는 없었다고 했다. 의료보험 수진내역자료 및 의무기록 상 강○○이 최초로 방문한 안과인 2006년 2월 27일 ○○안과의 검진에서는 왼쪽 눈에 발적 및 눈곱 등의 증상으로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한 각결막염으로 진단받고 이에 따른 치료를 받았다. 이 때 세극등현미경검사를 시행하였으나 각막 및 결막의 관찰 소견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. 눈이 충혈 되고 뻑뻑하여 뜨기 힘들며 아프다는 증상을 호소하여 2006년 3월 31일 ○○안과의원에서 누선의 기타 장애, 표층 각막염으로 진단받았으며 2006년 6월 ○○병원 방문 초진기록 상 ‘작업중 오염된 물이 눈에 들어간 이후 증상 발생하여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 없어 본원 방문’ 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8월 28일 ○○병원에서 눈물분비량검사 (Schirmer test) 등을 거쳐 ‘누도의 협착 및 기능장애’로 진단받았다. ○○병원의 세극등현미경검사소견상 결막의 발적은 있었으나 각막은 특이소견이 없었다. 안과 16곳을 84회 방문하여 치료받았으나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아 일을 할 수 없어 집에서 쉬고 있는 중이다.

4 결 론

근로자 강○○은

- ① 1년 6개월간 가죽염색 공정의 적재 작업을 하던 중 안구건조증으로 진단 받았는데,
- ② 적재 작업은 안구건조증의 직업환경적 요인으로 거론되는 저습도 환경 또는 시각적인 집중 작업에 해당하지 않으며,
- ③ 적재 작업 중 산성을 띤 세척액이 눈에 튀어 손상을 일으켜 안구건조증의 위험을 높였을 가능성을 들 수 있으나,
- ④ 최초의 눈 증상 발생 당시의 의무기록 상 각막의 화학적 손상의 진찰 소견이나 진단, 관련 치료를 한 내용이 없어,

근로자 강○○의 양안안구건조증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.